

지속가능 "지방정부" 실현

2024.5.2(목) 14:00
광진구청 회의실

콜롬비아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회의 자료

목 차

1. 회의 개요 ----- 3

2. 콜롬비아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

- 한국-콜롬비아 지방정부 교류협력 전략 ----- 7

1 회의 개요

□ 개요

- 일 시 : 2024. 5. 2(목), 14:00~16:00
- 장 소 : 광진구청 회의실
- 참석대상
 - 지자체 : 국제교류 담당자 등(서울 광진구)
 - 멘 토 : 추종연(LIG넥스원) 전문위원 ※ 前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
 - 협의회 : 국제교류부장, 담당자

□ 회의내용

- 콜롬비아 교류 관련 국가 특성 및 협력 전략 등
- 콜롬비아 교류 관련 질의 · 답변

□ 진행순서

시 간		진 행 내 용	비 고
14:00~14:10	'10	회의 순서 및 참석자 소개 등	국제교류부장
14:10~15:10	'60	교류도시 추천 및 정보 안내, 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	추종연 전문위원 (LIG넥스원)
15:10~16:00	'50	콜롬비아 교류 관련 질의, 응답	전체 참가자

서울시 광진구 국제교류 멘토링 자료

2023.5.2.(목) 14:00

전 주콜롬비아대사 추종연

【파트 I】

1. 콜롬비아 개황
2. 콜롬비아 최근 정세
3. 한-콜롬비아 관계
4. 미래의 유망한 한-콜롬비아 협력 분야

【파트 II】

5. 메데진(Medellin) 시 개요
6. 현 메데진 시장 약력
7. 메데진시의 얼룩진 역사
8. 메데진시 경제 현황
9. 파이사(Paisa)
10. 한국과 메데진시 협력 현황

【파트 III】

11. 광진구와 메데진 시 협력 분야
12. 협력 방법

【파트 I】

1. 콜롬비아 개황



- 국명 : 콜롬비아 공화국(Republica de Colombia)
- 수도 : 보고타(인구 746만, 고도 2,640m)
- 면적 : 1,141,748Km²(한반도의 약 5배)
- 인구 : 5천만
- 인종 : 백인 및 메스티조 86%, 아프리카계 10.6%,
원주민(Indigena) 3.4%
- 언어 : 스페인어
- 종교 : 카톨릭 79%, 개신교 13%, 무교 6%, 기타 2%
- 정부형태 : 대통령중심제(4년 단임, 직선)
- 의회 : 양원제(인기 4년, 직선)
 - 상원 108석, 하원 172석
- 병력 : 약 45만
 - 경찰 병력 포함/ 경찰은 국방부 산하 조직
- 독립일 : 1810.8.7.(국경일)
- GDP(2022) : 3,429억불

- 1인당 GDP(2022) : 6,644불
- 경제성장률(2023) : 0.6%
 - 2022년 7.5%
- 무역규모(2023) : 수출 495억불, 수입 627억불
- 외국인직접투자(FDI)(2023) : 174억불
- 해외송금(2023) : 100억불
- 화폐단위 : 페소(Peso)(1USD=4,325 Peso/2023년 평균)

2. 콜롬비아 최근 정세



- 2022.8월 출범한 Gustavo Petro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 추진 중
 - △급진적인 개혁안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과 △Petro 대통령의 연정 종료 선언(2023.4), △지방선거(2023.10)로 인한 개혁안 추진 동력 감소
-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의무적 자가격리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률 급증, 빈곤층 증가 등 고질적인 콜롬비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

- 2022년 들어 △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 및 물가 폭등, △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환율 폭등(콜롬비아 페소화 가치 폭락), △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취업률, △좌파정부 출범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 등이 겹치면서 다소 불안정한 양상 시현
- 그러나 2024년 현재 환율 안정, 물가 상승률 지속 하향세, 한자리수 실업률 유지 등 긍정적 신호 시현

3. 한-콜롬비아 관계

가. 한-콜롬비아 수교 60주년



- 한-콜롬비아 관계는 중남미 33개국과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성숙
 - 1962년에 수교하여 2022년 수교 60주년
 -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및 심리적인 우호 관계가 만들어진 데는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과 우리나라의 보훈외교가 크게 기여

나. 주요인사 교류

- 201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고위급 교류가 활발
 - 2011년 이후 콜롬비아 경우 부통령 이상,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상대국 방문이 모두 8회 실현
 - +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콜롬비아 방문
 - + 콜롬비아에서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, 이반 두케 대통령 그리고 앙헬리노 가르손 부통령,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(2회)이 한국 방문

다. 양국협력의 제도화

- 201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개의 협정 또는 약정(MOU) 체결
 - 82개 중 7개가 정부간 협정 즉, EDCF 차관약정, 이중과세방지협정, 투자보장협정, 자유무역협정(FTA),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, 공중보건협력협정, EDCF활동 협정이고 나머지는 기관간 약정(MOU)
- 보고타에는 공공기관으로 대사관 이외에 코트라(KOTRA), 코이카(KOICA)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 및 수출입은행이 진출
- 한-콜롬비아 FTA(2016.7월 발효)는 양국관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커다란 축으로 작동
 - 이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

라. ODA 중점협력국

-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를 3회 연속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
 - 콜롬비아에서 한국은 10위의 공여국 지위 확보
 - 한국은 국별협력전략(Country Partnership Strategy)으로 지역협력, 산업협력, 교통 및 평화구축 4개 분야 선정

마. 혈맹과 보훈외교



-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은 한-콜롬비아 관계 전반을 지탱하는 외교적 자산
 - 혈맹(Alianza de Sangre), 형제국가(Pais Hermano)
-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한국전쟁 참전은 잊혀져 가는 역사였으나 한국의 보훈외교가 한국전 참전역사를 부활
 - 우리 보훈당국은 참전용사 방한초청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며, 200-300명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매년 지급

4. 미래의 유망한 한-콜롬비아 협력 분야

가. 생명다양성 협력



- 콜롬비아는 생명다양성 세계 2위 국가로 에너지 및 광물, 농산물, 수산자원과 함께 유전자 자원의 보고(寶庫)
 - 2021년 두케 대통령의 한국방문 계기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MOU에도 생명공학분야 협력 포함
 - 생명다양성 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의 화장품, 의약품, 개인위생상품 생산 기업들과 콜롬비아의 생명다양성 기업 또는 연구소들을 연결시켜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협력 실현

나. 방위산업 협력



- 콜롬비아 정부가 FARC와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페트로 현 정부가 ELN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다양한 불법무장단체들이 콜롬비아 전국에 산재해 있어 치안문제 상존
 - 콜롬비아 무기체계의 노후화로 인한 방산협력 수요

-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형성된 특수한 역사적 관계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콜롬비아에 대한 개발지원은 방산협력에 우호적 분위기 형성

다. 조선(造船) 분야 협력



- 콜롬비아 국영 해군조선소(Cotecmar)와 아스티비크(Astivik) 조선소 등 주요 조선소는 파나마 운하와 인접해 있고,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이 많은 만큼,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 비즈니스 기회
 -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영해군조선소는 3,200톤급 해양조사선 포함, 여러 종류의 선박을 제조해온 경험과 잘 훈련된 기술인력 보유
- 콜롬비아와는 한국의 대형조선사들보다는 중견조선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바람직
 - 한국 중견조선사들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만큼, 외국 조선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데 관심 보유

라. 의료 및 보건 협력

-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에티오피아 및 콜롬비아를 Covid19 대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콜롬비아에만 4차례에 걸쳐 1천만불을 초과하는 지원
 - Covid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최초로 콜롬비아와 의료보건협력협정 체결
- 콜롬비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, 인도 등으로부터 백신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
 -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셀트리온과 씨젠이 콜롬비아에 지사 설립

마. 금융협력

- 수출입은행은 보고타 사무소역할을 주로 ODA협력으로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ICT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협조유자 2건으로 총 1억 8,000만불 규모의 경제협력기금(EDCF)을 콜롬비아에 지원
 - 콜롬비아 방코 데 옥시덴테(Banco de Occidente)에 1억불 규모의 전대차관(credit line) 2022년 개설

바. 수소협력

- 콜롬비아는 한국처럼 2050년 탄소제로를 추구하고 있으며, 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도 2030년까지 BAU(Business As Usual) 대비 51%로 설정
 -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오고 있고, 2021년에는 그린수소 발전계획을 발표
- 2022년 4월 콜롬비아수소협회는 우리나라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

(H2Korea)가 추진중인 ‘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(GHIAA)’ 가입 의향서(LOI)에 서명

【파트 II】

5. 메데진(Medellin) 시 개요



- 평균 고도 1,495m/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도시 발달
- “영원한 봄의 도시”로 불림/ 연평균 기온 섭씨 24도
- 보고타에 이어 콜롬비아 제2의 도시/인구 380만
- 안티오키아 주의 주도
-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상업 및 산업 도시
- 콜롬비아에서 유일하게 메트로가 운행되는 도시
- 11개의 대학교 소재
- 대표적인 디자인(moda) 도시
-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“세계 혁신도시”로 지정
- 2018년 Tripadvisor 선정 여행도시(Traveller’s Choice)
- Jose Maria Cordoba 국제공항 소재
 -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-1시간 거리
 - 파나마, 리마, 산살바도르, 멕시코시티, 마드리드, 카라카스 직항편 운행

□ 전통음식 Bandeja Paisa



□ 유명축제 Feria de las Flores



□ 관광지로 Plaza Botero, Jardin Botanico 등

6. 현 메데진 시장(저명한 정치인) 약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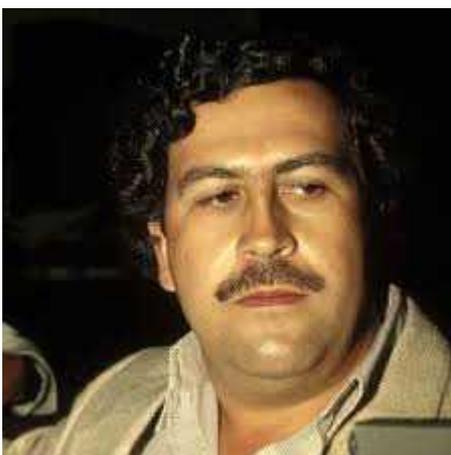


□ 성명 :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술루아가
(Fericico Gutierrez Zuluaga)

□ 2024.1.1. 메데진 시장 취임

- 임기 4년(2024-2027)
- 2023년 시장 선거에서 73.66% 득표
- 전임 시장 Daniel Quintero(2020.1-2022.5/2022.6-2023.3)
- 1974년생(만50세)
- 메데진 대학교 토목공학/볼리바르 대학교 정치학
- 가족 : 부인(Margarita Gomes Marin) 및
2남(Emilio 14세, Pedro 12세)
- 주요 경력
 - 메데진시 시의회 의원(2004-2011)
 - 메데진시 시장(2016-2020)
- 2022년 대선에 출마
 - 콜롬비아 전통정당들(민주중도당, U당, 급진당, 보수당, 자유당 등)이 지지
 - 선거에서 3등을 하여 결선에 진출하지 못함
 - 대선 결선에 진출한 Rodolfo Hernandez 우파후보 지지 표명
 - 현 대통령 Gustavo Petro 당선(2022.8.7. 취임)

7. 메데진 시의 얼룩진 역사



- 1970년대 말부터 메데진시는 Pablo Escobar의 마약 도시로 알려졌고 그로 인해 치안사정이 열악했으며 경제도 침체
 - 치안이 악화로 안티오키아 주는 콜롬비아의 평균 경제성장에도

못 미치는 성장을 보임

-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장분쟁의 중심지
 - 1990년대 초 메데진 카르텔이 사라지자 무장게릴라, 우익민병대, 마피아 조직들이 활개
- ※ 메데진 카르텔
 - ✓ 1970년대 및 1980년대 메데진에서 활동한 Pablo Escobar가 이끈 콜롬비아 최대 마약범죄 조직
 - ✓ 한 때 280억불 자산 보유
 - ✓ 세계에서 유통되는 코카인의 80%를 공급
 - ✓ 7-10만명의 조직원
 - ✓ 1991년에 정부군에 항복한 후, 정부와 합의하에 스스로 만든 호화 감옥 “Catedral”에 들어감
 - ✓ Escobar는 1992년 감옥에서 탈출하여 쫓기다가 경찰에 의해 사살당함
- 2000년대부터 치안이 호전됨에 따라 경제성장 지속
 - 2013년 세계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마약도시, 폭력도시의 오명에서 탈피

8. 메데진시 경제 현황



- 보고타에 이리 제2위 경제력 보유

- 주요 산업은 섬유 20%, 화학제품 14.5%, 음료 11%, 식품 10%, 기계(자동차), 전기 및 전자 10%, 기타 소프트웨어, 금융업
-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 및 기관들이 메데진에 소재
 - EPM(Empresas Publicas de Medellin)
 - ISAGEN/에너지 생산 및 배분
 - Grupo Empresarial Antioqueno
 - Metro de Medellin
 - 메데진 주식시장



- 광역 메데진 지역
 - 콜롬비아 GDP의 11% 차지
 - 안티오키아 경제의 70% 차지
- 메데진 시
 - 콜롬비아 GDP의 8% 차지
 - 안티오키아 경제의 55% 차지
- 2019년 통계로 실업률 12.2%, 지니계수 0.54, 빈곤율 22%, 비공식경제 45%
- 국제 컨벤션센터/Centro de Negocios 소재
- 휴렛 팩커드의 중남미지역 서비스센터(Ruta N) 소재
- 의류산업 중심지
- 금융도시
 - 콜롬비아 최대은행 Bancolombia 본사 소재

9. 파이사(Paisa)

- 메데진시, 안티오키아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, 그들의 문화, 삶의 방식, 말하는 방식, 음식 등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형용사
- 일설에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 안티오키아 거주하는 사람들이 스페인 안달루시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을 들어, 그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
- 그러나 오늘날 Paisa는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용어로 변화
 - ※ Paisa 여성 : 강하고, 용감하며,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크며, (새끼돼지/lechona)요리를 잘하는 여성



- Paisa 사투리/억양
 - pues, vos(tu 대신 사용)
 - 모임사이 s 및 d를 발음하지 않음/nosotros, terminado

10. 한국과 메데진시 협력 현황

- 국토교통부의 메데진시 ODA 프로젝트 시행
 -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(ITS) 구축
 - + 2016년 Master Plan 수립
 - + 2018년 기본설계 완료

- + 2019-2021 교통혼잡구간 차량검지기, 도로전광표지판, 통합 교통정보센터(CITRA), 홈페이지 설립
- 2021.11월 메데진 시장 참석하에 CITRA 준공식 거행



□ 춘천시-메데진시 자매결연

- 2018년 우호도시협약 체결
 - + 문화예술, 스포츠, 산업, 교육, 공공분야 등 정보/경험 공유
 - + 춘천시는 문화교류 및 지역기업의 중남미진출 확대 기대



- 2023.2월 자매결연 체결
- 2023.7월 춘천시장 메데진 방문
- 2023.11월 메데진시 대표단 춘천 방문
- 2024-26(3년)간 춘천시, 20명 메데진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시행(KOICA 사업)

【파트 III】

11. 광진구와 메데진 시 협력 분야(안)

□ 커피 분야

- 광진구 커피업계의 콜롬비아 커피원두 직수입
- 광진구 커피업 종사자들의 테마(커피) 관광 및 콜롬비아 현지 연수(Q Grader 과정)



□ 화훼 분야

- 콜롬비아 절화(cut flower)(국화, 수국) 직수입
- ※ 메데진시 근교는 대규모 국화 및 수국 재배 단지



□ 뷰티 산업

- 한국 화장품 수출(K-beauty)
- 성형수술(콜롬비아 의사 한국 연수)
- 화장품 원료(삼푸, 향수 등) 확보/연구소, 관련 기업 교류
- 모델 교류



□ 섬유 산업

- 화학섬유, 디자인, 날염 등 협력/전문가 교류



12. 협력 방법(안)

- 광진구 기업 시장개척단 파견/ 메데진 시장개척단 접수
- 각종 상품 전시회 상호 소개 및 참석/참가 초청
- 광진구에서 메데진 커피 및 화훼 전시회
 - 주한콜롬비아대사관(Procolombia) 협조
- 광진구/메데진시 단체/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MOU 체결



끝.

